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3. 4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석유 전자상거래 1년 이상하게 꼬였네”(동아일보, '13.4.9)

1. 기사내용

- 관세, 부과금 면제받은 수입휘발유 국내 정유사보다 13.19원/L 비싸
- 국내 정유회사와 수입사의 휘발유 판매가격 비교(도표)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동 보도내용 중 ‘관세,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휘발유가 국내 정유사보다 13.19원/L 비싸’는 사실과 다름

- 보도에서 인용한 수입사의 휘발유는 전량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수입휘발유가 아님(석유공사 제외)
 - * 석유공사를 제외한 일반 수입사는 ‘12년~’13.2월까지 휘발유 수입실적 없음
 - * 수출입사는 해외 또는 국내 정유사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또는 수출

□ 인센티브가 부여된 전자상거래의 경우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고 있음

- 전자상거래가격이 정유사 공급가대비 약 55원/L 저렴하여 수입 인센티브 약 44원/L* 이상으로 가격이 인하되었으며(‘12.7~’13.1, 경유)
 - * 할당관세 약 14~27원/L, 수입부과금 16원/L, B/D면제 10원/L
- 구매 주유소(7~12월), 대리점(10~12월)은 인센티브의 약 80%를 가격인하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- 저렴한 전자상거래가가 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인식되어 주유소와 정유사간 협상시 주유소의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

※ 자료문의 :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, 김형식 사무관(02-2110-5457)